

‘죽음’ 관련 어휘의 의미 고찰

A Study on the Meaning of Vocabulary Related to ‘Death’

최홍열*

국문요약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누구든 죽게 되는데, 이 ‘죽음’에 관련된 어휘로 형성된 낱말밭은 다른 단어들에 비하여 다양하다. 이 어휘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죽음’을 원어휘소로 하는 관련 어휘들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죽음’과 관련된 어휘들은 다양한 낱말밭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죽음’의 관련 어휘는 먼저 <방법>, <대상>, <표현>으로 크게 3개로 하위 분절하고, 이것을 다시 <방법>은 <행동>, <원인>, <형별>의 3개로, <대상>은 <연령>, <인원>, <종교>, <가족>, <신분>, <생물>의 6개로, <표현>은 <대우>, <비유>의 2개로 하위 분절을 하여, 이들 11개의 하위 분절에 포함하는 단어들의 의미자질을 분석하였다.

본고는 총 409개의 <죽음> 관련 어휘를 하위 분류하여 연구하였으며, 대부분의 단어들이 한자어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잊혀져 가고 있으며, 같은 의미에 여러 개의 동의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언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정신 세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낱말밭의 단어들의 변화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찾아내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어 죽음, 의미장, 의미자질, 의미론, 어휘론

- 차례**
1. 서론
 2. 본론
 3. 결론

1. 서론

인간은 언어를 표현의 수단으로 살아간다. 이 언어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어들이 가지는 자격 속에서 그 의미 차이로 인해 각자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커다란 상위어 아래 의미상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들에 의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낱말밭¹이라고 한다. 바이스게르버에 의하여 완성된 낱말밭 이론은 흄볼트의 세계관 이론을 발전시켜 언어적 중간세계로 발전시킨 것이다. 즉 우리 자신은 외부대상 세계의 사물을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라는 중간 세계를 거쳐 인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언어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의미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가지는 의미적 차이를 밝혀서 언어의 올바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¹ 이 용어를 낱말밭, 의미장, 어휘의 장이라고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낱말밭이나 의미장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낱말밭에 관한 이론적 소개로는 허발(1979), 김종태(1984) 등이 있고, 의미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는 천시권(1980), 배해수(1989, 1991a, 1991b), 양태식(1985), 박경현(1986), 정재윤(1989), 김응모(1989) 등이 있다.

다 하겠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누구든 죽게 되는데, 이 ‘죽음’에 관련된 어휘로 형성된 낱말밭은 다른 단어들에 비하여 다양하다. 이들 단어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죽음’을 원어휘소(元語彙素)로 하는 관련 어휘(關聯語彙)²들의 의미 차이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죽다’는 『①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다. ②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③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변하여 드러나지 아니하다. ④ 성질이나 기운 따위가 꺾이다. ⑤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지 못하고 잊혀지다. ⑥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⑦ 경기나 놀이 따위에서, 상대방에게 잡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⑧ 글이나 말 또는 어떤 현상의 효력 따위가 현실과 동떨어져 생동성을 잃다. ⑨ 상대방에게 으름장을 놓거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다』로 뜻풀이되는데, 이 중 논의의 대상은 의미 ①에 국한된다. 본고에서는 다른 부차적인 의미는 제외한다.

‘죽다’의 훈(訓)을 가진 한자로는 ‘사(死), 살(殺), 졸(卒), 상(喪), 부(仆), 환(圜), 요(夭), 붕(崩), 도(悼), 초(愀), 절(折), 몰(歿), 몰(沒), 열(涅), 멸(滅), 운(隕), 고(故), 폐(斃), 혼(昏), 배(背), 찰(札), 요(歿), 조(殂), 순(殉), 수(殊), 표(殍), 운(殞), 상(傷), 여(茹), 흥(薨), 유(瘳), 참(灑)’이 있어, 이들 한자들이 만들어 낸 한자어³들은 대다수 ‘죽음’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이 한자어들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의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여 ‘죽음’의 낱말밭을 유기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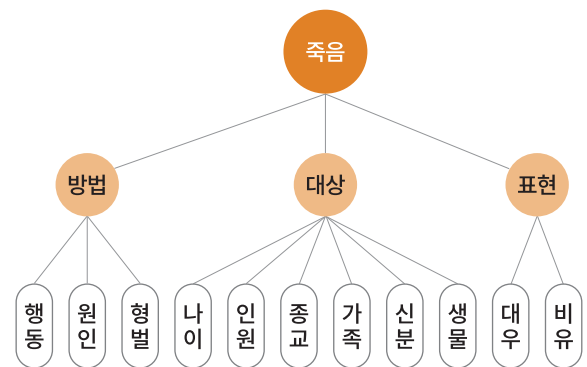
그래서 본고에서는 ‘죽음’을 원어휘소로 하는 관련 어휘들을 모두 설정하여 이들의 의미 차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관련어휘들은 ‘죽다, 죽음, 죽임’이 뜻풀이에 들어 있는 단어들이다. 논의 중에 제시하는 뜻풀이는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표준국어대사전』을 토대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2. 본론

2.1. ‘죽음’ 관련 어휘의 기본구조

‘죽음’의 관련 어휘는 먼저 <방법>, <대상>, <표현>⁴으로 크게 3개로 하위 분절하고, 이것을 다시 <방법>은 <행동>, <원인>, <형별> 3개로, <대상>은 <나이>, <인원>, <종교>, <가족>, <신분>, <생물>의 6개로, <표현>은 <대우>, <비유> 2개의 하위 분절한다. 이들 11개의 하위 분절에 포함하는 단어들의 의미자질을 논의하고자 한다.⁵



<그림 1> ‘죽음’의 기본구조

2 지금까지 이런 유형의 논문들은 낱말밭 이론에 의하여 ‘명칭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단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의미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을 관련 어휘라 칭한다.

3 한자어로 『사람이 죽음』의 뜻을 가진 것들은 불휘(不諱), 사망(死亡), 사물(死沒), 살월(殺越), 살인(殺人)과 같은 단어들이 있고, 이외의 단어들은 죽음의 원인 등이 있어 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낱말밭을 형성하게 된다.

4 분절자질 [방법]은 ‘죽음’을 일으키는 행동과 원인 등을 포괄하고, [대상]은 나이, 인원, 종교, 가족, 신분, 생물 등을 포괄한다. [표현]은 죽음의 방법이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이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죽음’의 어휘들을 다룬다.

5 그 아래의 하위 분절들은 매우 많아 각 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2.2. <방법>에 따른 분절

원어휘소 <죽음>은 먼저 <방법>으로 하위 분절하고, 이를 다시 <행동>, <도구>, <형벌>로 하위 분류하여 그 특성을 구분지어 의미자질의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2.1. <행동>에 의한 분절

<행동>은 다시 [정도], [유형], [상황], [잔혹⁶]으로 하위분절하여 논의한다.

2.2.1.1. <정도>

[정도]는 다시 [갑자기], [즉시], [마구], [함부로], [강제], [몰래], [완전히], [거의], [헛되이]로 하위 분절된다.

- ① ㄱ. 급사(急死), 돈사(頓死) / ㄴ. 졸사(猝死), 돌발사(突發死), 벼락죽음 / ㄷ. 폭사(暴死), 폭졸(暴卒) / ㄹ. 사고사(事故死) / ㅁ. 심장사(心臟死) / ㅂ. 엄살(掩殺)

위 ①의 용례들은 [정도]의 분절구조에서 [갑자기]의 자질을 가진다. ① ㄱ의 ‘급사(急死)’와 ‘돈사(頓死)’는 ‘갑자기 죽음’의 의미로, 이때 ‘급(急)’은 ‘급하다, 갑자기, 빠르다’의 의미이며, ‘돈(頓)⁷도 ‘갑자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① ㄴ의 ‘졸사(猝死)’, ‘돌발사(突發死)’, ‘벼락죽음’은 ‘뜻밖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의미이므로 [+뜻밖의]⁸의 의미 성분을 가진다. ① ㄷ의 ‘폭사(暴死), 폭졸(暴卒)’은 ‘갑자기 참혹하게 죽음’의 뜻으로 ‘폭(暴)’은 ‘갑자기’의 의미 외에 ‘사납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참혹]의 의미성분을 가진다. ① ㄹ의 ‘사고사(事故死)’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음’이므로 [+사고]의 자질을, ① ㅁ의 ‘심장사(心

臟死)’는 ‘심장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일’로 풀이되어 [+심장병]의 자질을 가진다. ① ㅂ의 ‘엄살(掩殺)’는 ‘별안간 습격하여 죽음’의 뜻으로 [+습격]의 자질을 가진다.

- ② 즉사(卽死), 속사(速死), 직사(直死), 즉살(卽殺), 즉참(卽斬)

위 ②의 어휘들은 [정도]의 분절구조에서 [즉시]의 자질을 가진다. ‘즉사(卽死)’, ‘속사(速死)’, ‘직사(直死), 즉살(卽殺), 즉참(卽斬)’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으로 ‘직(卽), 속(速), 직(直)’의 한자들은 ‘즉시, 곧바로’의 의미를 가진다.

- ③ ㄱ. 사람잡이 / ㄴ. 살육(殺戮), 육살(戮殺) / ㄷ. 학살(虐殺) / ㄹ. 진살(震殺)

위 ③에 제시한 어휘들은 [정도]의 분절구조에서 [마구]의 의미성분을 가진다. ③ ㄱ의 ‘사람잡이’는 ‘사람을 마구 가두거나 해치거나 죽음’의 뜻으로 [+가둠]의 자질을 가지며, ③ ㄴ의 ‘살육(殺戮)’과 ‘육살(戮殺)’은 ‘무엇을 트집 잡아 사람을 마구 죽음’의 뜻인데, ‘륙(戮)’은 ‘죽이다, 몰살시키다’의 의미를 가진 한자이므로 [+트집]의 성분을 가진다. ③ ㄷ의 ‘학살(虐殺)’은 ‘가혹하게 마구 죽음’의 뜻으로 ‘학(虐)’은 ‘사납다, 잔인하다, 가혹하다’의 의미로 [+가혹]의 성분을 가진다. ③ ㄹ ‘진살(震殺)’의 ‘진(震)’은 ‘벼락 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사정없이 마구 죽음’을 의미하므로 [+무자비]의 의미성분을 가진다.

- ④ 남살(濫殺), 천살(擅殺)

④의 어휘는 [정도]의 분절구조에서 [함부로]의 성분을 가진다. ④ ㄱ의 ‘남살(濫殺)’은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죽음’의 뜻을 가지며 ‘람(濫)’에는

6 [잔혹]은 하위자질로 [참혹]과 [잔인]이 형성하는데, 이들을 합쳐서 자질을 삼았다.

7 돈지(頓智)는 ‘약고 재빠른 슬기’의 뜻으로 이때 ‘돈(頓)’은 ‘갑자기, 빠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8 의미자질에서 ‘+’는 의미성분이 있고 없음의 개념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자질에 첨가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공통자질은 하나로 묶고 개별자질은 다시 제시한다.

‘함부로 하다’의 의미가 있다. ‘천살(擅殺)’의 ‘천(擅)’은 ‘멋대로, 마음대로’의 의미가 있어 ‘사람을 거리낌 없이 함부로 죽임’으로 풀이되어 [함부로]의 성분을 가진다.

- ⑤ ㄱ. 능사(勒死), 능살(勒殺), 강제사(強制死), 강제죽음(強制--)/ ㄴ. 고살(故殺)

위의 어휘들은 [정도]의 분절구조에서 [강제]의 자질을 가지는 것들이다. ⑤ㄱ의 ‘능사(勒死), 능살(勒殺), 강제사(強制死), 강제죽음(強制--)’은 ‘남을 강제로 죽임’으로 풀이되는데, ‘능(勒)’은 ‘억지로 하다’의 의미를 가진 한자로 [강제]의 자질을 가진다. ⑤ㄴ의 ‘고살(故殺)’은 ‘일부러 사람을 강제로 죽임’의 의미이므로 [+일부러]의 의미성분을 가진다.

- ⑥ ㄱ. 암살(暗殺), 도살(盜殺), 밀살(密殺), 암해(暗害)/ ㄴ. 암자(暗刺)

위의 용례 ⑥은 [정도]의 분절구조를 가지며 [몰래]의 자질을 가지는 한자어이다. ⑥ㄱ의 ‘암살(暗殺), 도살(盜殺), 밀살(密殺), 암해(暗害)’는 ‘남몰래 해치거나 죽임’의 의미로 ‘암(暗), 도(盜), 밀(密)’은 ‘몰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이다. 그러므로 [몰래]의 특성을 가진다. ⑥ㄴ의 ‘암자(暗刺)’는 ‘몰래 기회를 노려 사람을 찔러 죽임’으로 풀이되어 ⑥ㄱ의 ‘암살(暗殺)’의 자질보다는 [+찌름]의 성분을 지닌다.

- ⑦ ㄱ. 필사(必死), 필살(必殺)/ ㄴ. 반사(半死), 반죽음(半), 빈사(瀕死), 초벌죽음(初)

위 ⑦의 어휘들은 [정도]의 분절구조를 가지며 ⑦ㄱ은 [완전히]의 자질을 가지는 것이다. ‘필사(必死), 필살(必殺)’의 ‘필(必)’은 ‘반드시’의 뜻을 가진 한자이므로 [완전히]의

자질을 가진다. 또한 ‘필사(必死)’는 [+자동]의 자질을, ‘필살(必殺)’은 [+피동]의 특성을 가진다. ⑦ㄴ은 [거의]의 자질을 가지는 어휘들로 ‘반사(半死), 반죽음, 빈사(瀕死), 초벌죽음’은 모두 ‘거의 죽게 됨’의 뜻이어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게 된 경우에 쓰는 단어이므로 [거의]의 자질을 가진다.

- ⑧ 낭사(浪死), 도사(徒死), 몽사(夢死)

위 예문 ⑧의 ‘낭사(浪死), 도사(徒死), 몽사(夢死)’는 모두 ‘헛되이 죽음’이므로 [정도]의 분절구조에서 [헛되이]의 자질을 가진다.

2.2.1.2. <유형>

[유형]은 다시 [참], [뺨], [뺨], [비틀], [빠짐], [떨어짐], [넘어짐], [깔림], [떠돌음], [사로잡음], [쫓음], [실수]로 하위 분절된다.

- ⑨ 축살(蹴殺)

위의 예 ⑨는 [유형]의 분절구조에서 [참]의 자질을 가진다. ‘축살(蹴殺)’은 ‘발로 차서 죽임’의 의미이다.

- ⑩ ㄱ 경살(剗殺), 단두(斷頭), 참수(斬首), 도할(屠割), 작살(斫殺), 참륙(斬戮), 참사(斬死), 참살(斬殺), 수사(殊死), 참형(斬刑)/ ㄴ. 참간(斬奸), 금참(擒斬), 참벌(斬伐), 노획(虜獲), 문사(勿死)

위 ⑩의 어휘들은 [유형]의 분절구조에서 [뺨]의 자질을 가진다. ⑩ㄱ의 어휘들은 모두 ‘칼로 목을 베어 죽임’의 뜻으로 [+목]의 성분을 가진다. ⑩ㄴ의 어휘들도 모두 [뺨]의 자질을 가지는데, ‘참간(斬奸)’은 ‘간악한 사람을 베어 죽임’의 의미로 [+간신]의 자질, ‘금참(擒斬)’은 ‘사로잡

아 베어 죽임'의 뜻으로 [+생포]의 자질을, '참벌(斬伐)'은 '죄인을 목을 베어 죽임'의 뜻이므로 [+죄인]의 의미성분을 가진다. '노획(虜獲)'은 '적군을 산 채로 잡거나 목을 베어 죽임'으로 그 대상이 [+적군]이며, '문사(刎死)'는 '스스로 목을 베어 죽음'의 뜻으로 [+스스로]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 ⑪ ㄱ. 교사(絞死), 교수(絞首), 교살(絞殺), 교륙(絞戮), 액사(縊死), 액살(縊殺), 능사(勒死), 자액(自縊), 자경(自經)
- ⑫ 납살(拉殺)

위의 ⑪의 용례는 [유형]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교사(絞死), 교수(絞首), 교살(絞殺), 교륙(絞戮), 액사(縊死), 액살(縊殺)'은 모두 '목을 매어 죽임'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 어휘의 '교(絞), 액(縊)'은 '목을 매다'의 의미이므로 [멤]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능사(勒死)'는 '강제로 목을 매어 죽음'의 의미로 앞에 논의한 어휘들보다 [+강제로]의 성분을 가진다. 또한 '자액(自縊), 자경(自經)'은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음'의 뜻으로 [+스스로]의 자질을 가진다. ⑫의 '납살(拉殺)'은 '손으로 목을 비틀어 죽임'의 뜻으로 [비툼]의 자질을 가진다.

- ⑬ 수사(水死), 익사(溺死), 염사(澔死), 자수(自水), 투신자살(投身自殺)

위 ⑬의 어휘들은 [유형]의 분절구조를 가지며, 대상으로 [+빠짐] [+물]의 자질을 가진다. '수사(水死), 익사(溺死), 염사(澔死)'는 모두 '물에 빠져 죽음'의 의미이다. '닉(溺), 염(澔)'은 '물에 빠지다'의 훈을 가진 한자이다. '자수(自水)'는 '자기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음'의 뜻을, '투신자살(投身自殺)'은 '높은 데서 아래로 또는 물속으로 몸을 던져 스스로 죽음'의 뜻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⑭ 추락사(墜落死), 추사(墜死)

위의 ⑭의 단어들은 [유형]의 분절구조를 가지며, '추락사(墜落死)'와 '추사(墜死)'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음'의 의미이므로 [+떨어짐]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 ⑮ 도사(倒死), 전사(轉死), 폐사(斃死), 폐부(斃仆)

예 ⑮는 [유형]의 분절구조에서 [넘어짐]의 성분을 가진 어휘이다. '도사(倒死)'는 '길가에 넘어져 죽음'으로, '전사(轉死)'는 '굴러 넘어져 죽음'의 의미로 '도(倒)'는 '넘어지다', '전(轉)'은 '구르다'의 의미로 굴러 넘어짐의 의미가 있는 한자들이다. '폐사(斃死), 폐부(斃仆)'는 '쓰러져 죽음'의 의미인데, '폐(斃)'는 '넘어지다, 쓰러지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이므로 '도사(倒死)'와 같은 의미이며 [넘어짐]의 자질을 가진다.

- ⑯ ㄱ. 역사(轢死), 역살(轢殺) / ㄴ. 압사(壓死), 압살(壓殺)

예 ⑯ㄱ의 '역(轢)'은 '바퀴 밑에 깔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역사(轢死), 역살(轢殺)'은 '차바퀴에 깔려 죽음'의 의미로 [깔림] [+차바퀴]의 자질을 가진다. ⑯ㄴ의 '압사(壓死)'와 '압살(壓殺)'은 모두 '무거운 것에 눌러 죽음'의 뜻으로 [+무거움]의 자질을 가진다.

- ⑰ 행려사망(行旅死亡), 행려병사(行旅病死), 객사(客死)

위의 ⑰의 어휘들은 [유형]의 분절구조에서 [떠돌음]의 자질을 가진다. '행려사망(行旅死亡), 행려병사(行旅病死), 객사(客死)'는 '떠돌아다니다가 타향에서 죽음'으로 풀이되어 [+타향]의 자질을 가진다.

- ⑱ 포살(捕殺), 포토(捕討), 금진(禽殄 / 擒殄)

⑱은 [유형]의 분절구조에서 [사로잡음]의 자질을 가진다. ‘포살(捕殺), 포토(捕討)’는 ‘잡아 죽임’이고, ‘금진(禽殄/擒殄)’은 ‘금(擒)’이 ‘사로잡다, 생포하다’의 뜻을 가지므로 ‘사로잡아 죽임’의 뜻이다.

⑲ 방벌(放伐), 방살(放殺), 폐시(廢戾)

⑲는 [유형]의 분절구조에서 [쫓음]의 자질을 가진다. ‘방벌(放伐), 방살(放殺)’은 ‘쫓아내어 죽임’의 의미이고, ‘폐시(廢戾)’도 ‘폐하고 죽임’의 의미이므로 같은 성분을 가진다.

⑳ 오살(誤殺), 희살(戲殺)

위의 ⑳ 용례는 [유형]의 분절구조에서 [실수]의 자질을 가진다. ‘오살(誤殺)’은 ‘잘못하여 사람을 죽임’의 의미이며, ‘희살(戲殺)’은 ‘장난을 하다가 잘못하여 죽임’으로 풀이되어 [+장난]의 특성을 가진다.

2.2.1.3. <상황>

[상황]은 다시 [굶음], [날씨], [술취함], [마름], [마음], [뻘] [기이함]으로 하위 분절된다.

- ㉑ 기사(飢死/饑死), 아사(餓死), 아살(餓殺), 궁사(窮死)
- ㉒ ㄱ. 동사(凍死) / ㄴ. 갈사(渴死)
- ㉓ 취사(醉死),
- ㉔ 수사(瘦死), 쇠사(衰死)

위 ㉑의 예는 [상황]의 분절구조에서 [굶음]의 성분을 가진다. ‘기사(飢死/饑死), 아사(餓死), 아살(餓殺), 궁사(窮)’의 ‘기(飢), 기(饑), 아(餓), 궁(窮)’은 ‘주리다, 굶기다, 굶주림’의 훈을 가지고 있는 한자이므로 ‘굶겨 죽임’의 뜻이다. ㉒는 [날씨]의 자질을 가진다. ㉒ ㄱ의 ‘동사(凍死)’는 ‘얼어

죽음’으로 풀이되어 [+추위]의 자질을 가지며, ㄴ의 ‘갈사(渴死)’는 ‘더위를 먹어 죽음’의 의미이며 ‘갈(渴)’은 ‘더위를 먹다’이므로 [+더위]의 자질을 가진다. ㉓의 ‘취사(醉死)’는 ‘술에 취하여 죽음’으로 풀이되는데, ‘醉’는 ‘취하다’의 의미가 있어 [술취함]의 자질을 가진다. ㉔의 ‘수사(瘦死)’는 ‘말라 죽음’의 뜻이고, ‘쇠사(衰死)’는 ‘쇠약해져서 죽음’으로 ‘수(瘦), 쇠(衰)’는 ‘여위다, 마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 [마름]의 성분을 가진다.

㉕ 수사(愁死), 민사(悶死) / 원사(冤死), 한살(恨殺), 한사(恨死) / 피폐(疲斃) / 울사(鬱死) / 괴사(愧死) / 분사(憤死)

위 ㉕의 예들은 [상황]의 분절구조에서 [마음]의 성분을 가진다. 이들 어휘들은 모두 [마음]에서 나타나는 희로애락에 관련된 자질들이다. ‘수사(愁死)’는 ‘지나친 걱정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뜻이고, ‘민사(悶死)’는 ‘고민하다가 죽음’의 뜻이므로 [+걱정]의 자질을 가진 어휘이다. ‘수(愁), 민(悶)’은 ‘걱정하다, 번민하다’의 의미이다. ‘원사(冤死), 한살(恨殺), 한사(恨死)’의 ‘원(冤), 한(恨)’은 ‘원통하다’의 의미가 있어 [+원통]의 자질을 가진다. ‘피폐(疲斃)’는 ‘기운이 지쳐 죽음’의 뜻인데, ‘피(疲)’는 ‘피곤하다’의 의미가 있어 [+피곤]의 자질을 가진다. ‘울사(鬱死)’의 ‘울(鬱)’은 ‘답답하다’의 의미로 [+답답함]의 성분이 있다. ‘괴사(愧死)’는 ‘몹시 부끄러워서 죽음’의 뜻으로 [+부끄러움]을 가지며, ‘분사(憤死)’는 ‘분(憤)에 못 이겨 죽음’의 뜻으로 [+분함]의 특성을 가진다.

- ㉖ 유살(誘殺), 모살(謀殺), 교살(矯殺), 여수(與手)
- ㉗ 괴사(怪死)

위 ㉖의 어휘들은 [상황]의 분절구조에서 [뻘]의 자질을 가진다. ‘유살(誘殺)’은 ‘유인하여 죽임’의 의미이고, ‘모살(謀殺)’은 ‘미리 꾀하여 사람을 죽임’의 의미이다. ‘교살

(矯殺)은 ‘임금의 명령이라고 속여 사람을 죽임’으로 [+속임]의 특성을 가지며, ‘여수(與手)’는 ‘남을 시켜서 죽임’의 뜻이므로 [+사역]의 자질을 가진다. ⑳의 ‘괴사(怪死)’는 ‘원인을 알 수 없이 죽음’의 뜻으로 ‘괴(怪)’는 ‘기이하다’의 의미로 [기이함]의 성분을 가진다.

2.2.1.4. <잔혹>

<잔혹>은 다시 [불], [막힘], [때림], [찌름], [찢음], [찌름], [참혹함], [잔인] [협박]으로 하위 분절된다.

- ㉘ ㄱ. 분살(焚殺), 분사(焚死), 소사(燒死), 소살(燒殺), 화살(火殺), 자분(自焚) / ㄴ. 난사(爛死) / ㄷ. 확팽(鑊烹), 확탕(鑊湯), 탕확(湯鑊), 증살(蒸殺/烝殺) / ㄹ. 질사(窒死)

위의 ㉘의 어휘들은 [잔혹]의 분절구조에서 [불]의 자질을 가진다. ㉘ㄱ의 [잔혹]에서 [+태움]의 자질을 가진다. ‘분살(焚殺), 분사(焚死), 소사(燒死), 소살(燒殺), 화살(火殺)’은 모두 ‘사람을 불에 태워 죽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자분(自焚)’은 ‘자기 몸에 스스로 불을 지르거나 불 속에 뛰어들어 죽음’의 뜻이므로 [+스스로]의 자질을 더 가진다. ㉘ㄴ ‘난사(爛死)’의 ‘난(爛)’은 ‘불에 데다’의 의미를 가진 한자이므로 ‘화상을 입어 죽음’의 뜻이므로 [+땀]의 자질을 가진다. ㉘ㄷ은 [잔혹]에서 [+삶음]의 자질을 가진다. ‘확팽(鑊烹), 확탕(鑊湯), 탕확(湯鑊)’의 ‘확(鑊)’은 ‘가마’의 뜻이므로 ‘가마에 넣어서 삶아 죽임’의 의미이다. ‘증살(蒸殺/烝殺)’은 ‘뜨거운 증기로 찌서 죽임’의 의미이다. ㉘ㄹ의 ‘질사(窒死)’는 ‘질식하여 죽음’의 뜻으로 [+막힘]의 자질을 가진다.

- ㉙ ㄱ. 주벌(誅伐), 타살(打殺), 구살(毆殺), 박살(撲殺), 격살(格殺) / ㄴ. 격살(擊殺) / ㄷ. 추살(椎殺) / ㄹ. 추살(捶殺) / ㅁ. 장적(戕賊), 잔적(殘賊)

위의 ㉙의 어휘들은 [잔혹]의 분절구조에서 [때림]의 자질을 가진다. ㉙ㄱ의 ‘주벌(誅伐), 타살(打殺), 구살(毆殺), 박살(撲殺), 격살(格殺)’은 ‘손으로 쳐서 죽임’으로 풀이되는데, ‘주(誅), 타(打), 박(撲), 격(格)’은 ‘치다, 때리다’의 의미를 가진다. ㉙ㄴ의 ‘격살(擊殺)’은 ‘무기 따위로 쳐서 죽임’의 의미로 [+무기]의 특성을 가지며, ㉙ㄷ의 ‘추살(椎殺)’은 ‘몽둥이로 쳐서 죽임’의 뜻으로 [+몽둥이], ㉙ㄹ의 ‘추살(捶殺)’은 ‘채찍으로 쳐서 죽임’의 뜻으로 [+채찍]의 성분을 가진다. ㉙ㅁ의 ‘장적(戕賊), 잔적(殘賊)’은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쳐 죽임’의 뜻으로 [+잔인]의 특성을 가진다.

- ㉚ ㄱ. 척살(刺殺), 충살(衝殺) / ㄴ. 책살(磔殺) / ㄷ. 우자(耦刺) / ㄹ. 자문(自刎), 자경(自剄), 자자(自刺), 경사(剄死)

위의 ㉚의 용례는 [잔혹]의 분절구조에서 [찌름]의 자질을 가진다. ㉚ㄱ의 ‘척살(刺殺), 충살(衝殺)’은 모두 ‘칼 따위로 사람을 찔러 죽임’이란 뜻이고, ‘자(刺), 충(衝)’은 모두 ‘찌르다’의 훈을 가진다. [+칼]의 성분을 가진다. ㉚ㄴ의 ‘책살(磔殺)’은 ‘기둥에 묶어 창으로 찔러 죽임’의 뜻인데, 이때 ‘책(磔)’은 ‘찢다’의 훈을 가지고 있어서 ‘창으로 찢르다’의 의미로 쓰였다. [+창]의 특성을 가진다. ㉚ㄷ의 ‘우자(耦刺)’는 ‘둘이 서로 맞짚어서 죽음’의 뜻으로 ‘우(耦)’는 ‘짝, 상대자’의 의미로 [+상대]의 자질을 가진다. ㉚ㄹ의 ‘자문(自刎), 자경(自剄), 자자(自刺), 경사(剄死)’는 ‘스스로 목을 찔러 죽음’의 뜻으로 [+스스로]의 특성을 가진다.

- ㉛ ㄱ. 척살(擲殺) / ㄴ. 거열(車裂), 환열(輓裂)

위의 ㉛의 어휘들은 [잔혹]의 분절구조에서 [던짐]과 [찢음]의 자질을 가진다. ㉛ㄱ의 ‘척살(擲殺)’은 ‘내던져 죽임’의 뜻으로 ‘척(擲)’은 ‘던지다, 버리다’의 의미를 가진 한

자이다. ㉑ㄴ의 ‘거열(車裂), 환열(輓裂)’은 ‘수레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서 찢어 죽임’의 뜻으로 [+수레]의 자질을 가진다.

㉒ ㄱ 흉해(凶害/兇害), 흉살(凶殺/兇殺), 참살(慘殺), 참사(慘死) / ㄴ. 천참만륙(千斬萬戮), 분골(粉骨) / ㄷ. 즉살탕(卽殺湯)

위 ㉒의 용례는 [잔혹]의 분절구조에서 [참혹]의 자질을 가진다. ㉒ㄱ의 ‘흉해(凶害/兇害), 흉살(凶殺/兇殺), 참살(慘殺), 참사(慘死)’⁹는 모두 ‘참혹하게 죽임’의 뜻으로 [참혹]의 특성을 가진다. ㉒ㄴ의 ‘천참만륙(千斬萬戮), 분골(粉骨)’은 모두 ‘수없이 베어 여러 동강을 내어 참혹하게 죽임’으로 [+가루]의 자질을 가진다. ㉒ㄷ의 ‘즉살탕(卽殺湯)’은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처참하게 죽음’의 뜻으로 [+즉시]의 특성을 가진다.

㉓ ㄱ. 잔살(殘殺), 참살(慘殺) / ㄴ. 갱살(坑殺), 갱륙(坑戮) / ㄷ. 낙살(烙殺) / ㄹ. 요살(囓殺) / ㅁ. 답살(踏殺)

위 ㉓의 용례들은 [잔혹]의 분절구조에서 [잔인]의 자질을 가진다. ㉓ㄱ의 ‘잔살(殘殺), 참살(慘殺)’은 ‘잔인하게 죽임’의 뜻이며, ㉓ㄴ의 ‘갱살(坑殺), 갱륙(坑戮)’은 ‘구덩이에 산 채로 넣고 묻어 죽임’의 뜻이므로 [+구덩이]의 자질을 가진다. ㉓ㄷ의 ‘낙살(烙殺)’은 ‘사람을 단근질하여 죽임’의 뜻으로 ‘낙(烙)’은 ‘지지다’의 의미이다. [+지짐]의 성분을 가진다. ㉓ㄹ의 ‘요살(囓殺)’은 ‘물어서 죽임’으로 ‘요(囓)’는 ‘깨물다’의 뜻을 가진 한자로 [+깨물음]의 자질을 가진다. ㉓ㅁ의 ‘답살(踏殺)’은 ‘짓밟아서 죽임’의 뜻으로 [+밟음]의 자질을 가진다.

9 죽음의 한자 ‘사(死)’와 ‘살(殺)’의 의미자질의 차이는 [자(自)], [타(他)]로 구분되므로 다른 논의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

㉔ 겁살(劫殺), 꺾살(逼殺)

위의 ㉔은 [잔혹]의 분절구조에서 [협박]의 자질을 가진다. ‘겁살(劫殺)’은 ‘힘으로 내리누르고 협박하여 죽임’으로 풀이되며 [+힘]의 자질을 나타내며, ‘꺾살(逼殺)’은 ‘사람을 올려서 죽임’의 뜻으로 ‘꺾(逼)’도 ‘협박하다, 위협하다’이므로 ‘겁살(劫殺)’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2.2.2. <원인>에 의한 분절

[원인¹⁰]은 다시 [독약], [병], [숨], [전쟁], [의(義)], [무기], [전기], [재해]로 하위분절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㉕ ㄱ. 독사(毒死), 독살(毒殺), 독해(毒害), 독시(毒弒) / ㄴ. 짐살(鳩殺), 짐시(鳩弒).

위의 ㉕의 어휘들은 [독약]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㉕ㄱ의 ‘독사(毒死)’는 ‘독약에 의하여 죽음’의 의미이므로 [+자신]의 자질을 가지며, ‘독살(毒殺), 독해(毒害)’는 [+타인]의 자질을 가진다. ‘독시(毒弒)’는 ‘독약으로 윗사람을 죽임’의 뜻으로 ‘시(弒)’는 ‘임금이나 윗사람을 죽이다’의 의미를 가진 한자이므로 ‘독살(毒殺)’에 비해 [+윗사람]의 특성을 가진다. ㉕ㄴ의 ‘짐살(鳩殺), 짐시(鳩弒)’은 ‘짐주(鳩酒)를 먹여 사람을 죽임’으로 풀이되어 [+짐독]의 성분을 가지며, ‘짐시(鳩弒)’는 ‘짐살(鳩殺)’보다 [+윗사람]의 자질을 가진다.

㉖ ㄱ. 병사(病死), 병몰(病沒), 병폐(病斃), 전병사(戰病死), 돈병사(頓病死) / ㄴ. 광사(狂死) / ㄷ. 중사(中死)

위 ㉖의 어휘는 [병(病)]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㉖ㄱ의 ‘병사(病死), 병몰(病沒), 병폐(病斃)’는 ‘병으로 죽음’의 뜻으로 [병(病)]의 성분을 가진다. ‘전병사(戰病死)’는 ‘군인이 중

10 분절자질 [원인]에는 죽음의 ‘재료, 이유, 원인’ 등을 포괄하여 분류하였다.

군(從軍)하는 동안에 병에 걸려 죽음'으로 [+중군]의 자질을 가진다. '돈병사(頓病死)'는 '급환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급환]의 자질을 가진다. ㉞ㄴ의 '광사(狂死)'는 한자의 뜻 그대로 '미쳐서 죽음'으로 풀이되며, [+미침]의 특성을 가진다. ㉞ㄷ의 '중사(中死)'는 '중풍으로 죽음'으로 풀이되어 [+중풍]의 성분을 가진다.

㉞ ㄱ. 사절(死絶), 숨지다 / ㄴ. 질식사(窒息死)

위의 ㉞은 [숨]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㉞ ㄱ의 '사절(死絶), 숨지다'는 '숨이 끊어져 죽음'으로 풀이된다. ㉞ ㄴ의 '질식사(窒息死)'는 '숨이 막히거나 산소가 없어서 죽음'의 뜻으로 [+막힘]의 자질을 가진다.

㉞ ㄱ. 전사(戰死), 전망(戰亡), 전몰(戰歿), 진망(陣亡), 진몰(陣歿), 투사(鬪死), 투살(鬪殺) / ㄴ. 패사(敗死), 패몰(敗沒) / ㄷ. 공살(攻殺), 습살(襲殺), 장살(戕殺)

위의 ㉞ 어휘들은 [전쟁]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㉞ ㄱ의 '전사(戰死), 전망(戰亡), 전몰(戰歿), 진망(陣亡), 진몰(陣歿), 투사(鬪死), 투살(鬪殺)'은 모두 '싸움터에서 싸우다가 죽음'의 뜻을 가지고 있다. ㉞ ㄴ의 '패사(敗死), 패몰(敗沒)'은 '싸움에 져서 죽음'의 뜻으로, ㉞ ㄱ이 '전쟁터에서 즉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이 어휘들은 [+짐]의 성분을 가진다. ㉞ ㄷ의 '공살(攻殺)'은 '공격하여 죽임'의 의미로 [+공격]의 자질을 가지며, '습살(襲殺)'은 '습격해서 죽임'의 의미로 [+습격]의 자질을 가지는데, 이들 두 단어는 '쳐들어가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비해 '장살(戕殺)'은 '무절러 죽임'의 뜻으로 [+방어]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

㉞ ㄱ. 사의(死義), 순의(殉義), 의사(義死), 취의(就義) / ㄴ. 절사(節死), 입근(立慳), 수절사의(守節死義), 수절원사(守節冤死) / ㄷ. 순절(殉節), 충사(忠死)

㉞의 어휘들은 [의(義)]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㉞ ㄱ의 '사의(死義), 순의(殉義), 의사(義死), 취의(就義)'는 모두 '의(義)를 위하여 죽음'의 의미로 [의(義)]의 자질을 가진다. ㉞ ㄴ의 '절사(節死), 입근(立慳), 수절사의(守節死義)'는 '절개를 지키어 의롭게 죽음'의 뜻으로 [+절개]의 성분을 가지는데, '수절원사(守節冤死)'는 '절개를 지키다 원통하게 죽음'의 의미이므로 앞의 어휘들에 비해 [+원통]의 자질을 가진다. ㉞ ㄷ의 '순절(殉節), 충사(忠死)'는 '충절(忠節)이나 정절(貞節)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의 뜻으로 [+충성]의 자질을 가진다.

㉞ ㄱ. 폭사(爆死), 폭발(爆殺) / ㄴ. 사살(射殺) / ㄷ. 중환치사(中丸致死)

위의 ㉞의 어휘들은 [무기]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㉞ ㄱ의 '폭사(爆死), 폭발(爆殺)'은 '폭탄이나 폭약 따위를 터뜨려서 죽임'으로 풀이되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폭탄]의 분절을 가지며, ㉞ ㄴ의 '사살(射殺)'은 '활이나 총 따위로 쏘아 죽임'의 뜻으로 [+활]의 성분을 가진다. ㉞ ㄷ의 '중환치사(中丸致死)'는 '총탄에 맞아 죽음'이므로 [+총탄]의 자질이 있다.

㉞ 감전사(感電死), 전격사(電擊死)

위의 ㉞의 어휘는 [전기]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감전사(感電死)'는 '감전되어 죽음'의 뜻이고, '전격사(電擊死)'는 '강한 전류를 갑자기 몸에 느꼈을 때의 충격으로 인한 죽음'의 뜻을 가지고 있어 [전기]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전격사(電擊死)'는 [+충격]의 자질을 가진다.

㉞ ㄱ. 재해사(災害死) / ㄴ. 흉종(凶終)¹¹

11 '흉종(凶終)'은 주로 '수재(水災), 화재(火災), 흉한(凶漢), 형륙(刑戮)' 따위로 죽는 일을 이르는 것으로 [재해]의 자질에 포함시켰다.

위 ㉔의 예는 [재해]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㉔ㄱ의 ‘재해사(災害死)’는 ‘재해로 말미암은 죽음’의 뜻이고, ㉔ㄴ의 ‘흉종(凶終)’은 ‘흉한 몰골로 죽음’으로 풀이되는데, ‘흉한 몰골’의 원인은 ‘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것이기에 [+흉함]의 자질을 가진다.

2.2.3. <형벌>에 의한 분절

[형벌]은 다시 [형법], [죄명], [형집행], [천벌]로 하위 분절하여 논의한다.

㉕ ㄱ. 옥사(戮死), 형사(刑死), 형륙(刑戮), 형벽(刑辟) / ㄴ. 복주(伏誅), 복법(伏法)

위 ㉕의 어휘들은 [형법]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㉕ㄱ의 ‘옥사(戮死), 형사(刑死), 형륙(刑戮), 형벽(刑辟)’은 ‘죄지은 사람을 형법에 따라 죽임’으로 풀이된다. ㉕ㄴ의 ‘복주(伏誅), 복법(伏法)’은 ‘형벌을 순순히 받아 죽음’으로 [+복종]의 특성을 가진다.

㉕ ㄱ. 왕사(枉死), 옥좌(戮挫), 주륙(誅戮), 구살(構殺) / ㄴ. 주살(誅殺), 안살(按殺), 국살(鞠殺/鞠殺) / ㄷ. 상명(償命)

위 ㉕의 예는 [죄명]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㉕ㄱ의 ‘왕사(枉死), 옥좌(戮挫), 주륙(誅戮), 구살(構殺)’은 ‘없는 일을 꾸며서 죄를 씌워 죽임’의 뜻을 가진 단어들로 죄가 없는데 죄를 씌워 죽인다는 의미로 [+무죄]의 자질을 가진다. ㉕ㄴ의 ‘주살(誅殺), 안살(按殺)’은 ‘죄를 물어 죽임’의 뜻으로 [+유죄]의 특성을 가진다. ‘국살(鞠殺/鞠殺)’은 ‘국청(鞠廳)에서 중죄인을 신문하여 죽임’의 의미로 중죄인에게 ‘국가’나 ‘임금’이 죄를 묻는 것을 말한다. [+국청]의 성분을 가진다. ㉕ㄷ의 ‘상명(償命)’은 ‘살인한 사람을 죽임’의 뜻으로 [+살인죄]의 특성을 가진다.

㉕ ㄱ. 장사(杖死), 장폐(杖斃), 장살(杖殺) / ㄴ. 옥사(獄死), 뇌사(牢死), 유사(痲死), 수폐(瘦斃) / ㄷ. 적사(謫死), 찬사(竄死), 찬살(竄殺) / ㄹ. 엄형정형(嚴刑正刑)

위의 ㉕ 용례는 [형집행]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㉕ㄱ의 ‘장사(杖死), 장폐(杖斃), 장살(杖殺)’은 ‘형벌로 매를 쳐서 죽임’의 의미이고 ‘장(杖)’은 ‘몽둥이, 지팡이’의 의미를 가진 한자이다. [+몽둥이]의 특성을 가진다. ㉕ㄴ의 ‘옥사(獄死), 뇌사(牢死), 유사(痲死)’는 ‘감옥에서 죽음’의 뜻이므로 [+감옥]의 자질을 가진다. ‘수폐(瘦斃)’는 ‘옥중에서 야위어 죽음’의 의미로 [+야위]의 자질을 가진다. ㉕ㄷ의 ‘적사(謫死), 찬사(竄死), 찬사(竄死)’는 ‘귀양가서 죽음’의 뜻으로 [+귀양]의 특성을 가진다. ㉕ㄹ의 ‘엄형정형(嚴刑正刑)’은 ‘형벌을 엄하게 하여 죽임’으로 형집행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엄함]의 특성을 가진다.

㉕ ㄷ. 앙륙(殃戮), 진사(震死)

위 ㉕의 예는 [천벌]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앙륙(殃戮)’은 ‘천벌을 받아 죽음’으로 뜻풀이 되는데, ‘앙(殃)’은 ‘재앙, 재앙을 내리다’의 뜻이므로 [+재앙]의 자질을 가진다. ‘진사(震死)’는 ‘벼락을 맞아 죽음’으로 ‘벼락’은 ‘천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벼락]의 특성을 가진다.

2.3. <대상>에 따른 분절

원어휘소 <죽음>은 다시 <대상>으로 하위 분절하고, 이를 다시 [연령], [인원], [종교], [가족], [신분], [생물]로 하위 분류하여 의미자질을 파악한다.

2.3.1. <연령>에 의한 분절

<연령>은 다시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중년], [노년], [순서]로 하위 분절하여 의미성분을 논의한다.

㉗ ㄱ. 무복지상(無服之殤) / ㄴ. 하상(下殤)

위 ㉗의 예는 [어린이]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㉗ㄱ의 ‘무복지상(無服之殤)’은 ‘상복을 입지 아니하는, 일곱 살 이하의 어린이의 죽음’이므로 [+일곱살 이하]의 특성을 가진다. ㉗ㄴ의 ‘하상(下殤)’은 ‘여덟 살에서 열세 살 사이의 나이에 일찍 죽음’으로 [+여덟에서 열셋]의 자질을 가진다.

㉘ ㄱ. 중상(中殤) / ㄴ. 상상(上殤), 장상(長殤) / ㄷ. 상사(殤死)

위 ㉘의 어휘들은 [청소년]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㉘ㄱ의 ‘중상(中殤)’은 ‘12세부터 15세 사이에 죽음’의 뜻으로 [+12~15세]의 자질을 가지며, ㉘ㄴ의 ‘상상(上殤), 장상(長殤)’은 ‘열다섯에서 스무 살 사이에 장가들지 않고 죽음’의 뜻으로 [+15~20세]의 성분을 가진다. ㉘ㄷ의 ‘상사(殤死)’는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죽음’으로 [+스물이전]의 자질을 가진다.

㉙ 요절(夭折), 단절(短折), 요몰(夭沒), 요사(夭死), 요상(夭殤), 요서(夭逝), 요수(夭壽), 요졸(夭卒), 요찰(夭札), 요촉(夭促), 요함(夭陷), 절사(折死), 조사(早死), 조서(早逝), 조세(早世), 조졸(早卒), 횡요(橫夭)

위 ㉙의 예들은 [젊은이]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㉙의 어휘들 모두 ‘젊은 나이에 죽음’의 뜻을 가지는데, 이때의 ‘요(夭), 조(早)’는 ‘어리다, 일찍’의 의미를 가진 한자이다.

㉚ 중요(中天)

㉚ ㄱ. 비명(非命), 경폐(徑斃), 생죽음(生--), 우연사(偶然死), 비명횡사(非命橫死) / ㄴ. 질러죽다, 질거죽다, 오사(誤死)

위 ㉚~㉛의 예들은 [중년]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㉚의 ‘중요(中天)’는 ‘중년에 죽음’의 뜻으로 [중년]의 자질을 가지며, ㉚의 용례들은 [비명(非命)¹²]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㉚ㄱ의 ‘비명(非命), 경폐(徑斃), 생죽음, 우연사(偶然死)’는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음’의 뜻으로 [비명]의 자질을 갖는다. ㉚ㄴ의 ‘질러죽다, 질거죽다’는 ‘고통이나 시달림으로 제명보다 일찍 죽다’의 뜻으로 [+고통]의 자질을 가지며, ‘오사(誤死)’는 ‘형벌이나 재앙으로 제 목숨대로 살지 못하고 비명에 죽음’의 뜻으로 [+재앙]의 특성을 가진다.

㉛ ㄱ. 노사(老死), 물화(物化), 수사(壽死), 양사(良死), 진년(盡年) / ㄴ. 계운(繼隕), 순연(順緣)

위 ㉛의 예들은 [노년]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㉛ㄱ의 어휘들은 모두 ‘자기 살 나이를 다 살고 죽음’의 뜻을 가진 단어이다. ㉛ㄴ의 ‘계운(繼隕)’은 ‘뒤를 이어 죽음’의 뜻이고, ‘순연(順緣)’은 ‘늙은 사람부터 차례로 죽음’의 뜻이므로 [+순서]의 자질을 가진다.

2.3.2. <인원>에 의한 분절

<인원¹³>은 다시 [다수], [모두]로 하위 분절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㉜ 다살(多殺)

위 ㉜의 ‘다살(多殺)’은 ‘많이 죽임’의 뜻으로 [다수]의 성분이 있다.

㉜ ㄱ. 폐죽음, 몰사(沒死), 함몰(咸沒), 몰살(沒殺), 몰죽음

12 ‘비명(非命)’은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음’의 의미이므로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어서 [노년]의 자질보다는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년]의 자질로 논의한다.

13 ‘죽음’에 대한 어휘의 [인원]에는 대다수가 1인이므로 여기서는 그 이상의 인원수에 대해서만 뜻풀이에 나온 것만을 기준으로 하위분절하였다.

(沒), 주이(誅夷), 진륙(殄戮), 진몰(盡歿), 진살(盡殺) / ㄴ. 참몰(慘沒) / ㄷ. 오살(鑿殺), 전몰(全歿) / ㄹ. 족살(族殺), 멸문(滅門), 멸족(滅族)

위의 ㉔ 예는 [모두]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㉔ㄱ의 ‘떼 죽음, 몰사(沒死), 함몰(咸沒), 몰살(沒殺), 몰죽음(沒--), 주이(誅夷), 진륙(殄戮), 진몰(盡歿), 진살(盡殺)’은 모두 ‘모조리 다 죽음’의 뜻이다. ㉔ㄴ의 ‘참몰(慘沒)’은 ‘모조리 참혹하게 죽음’의 뜻으로 [+참혹]의 자질을 가지며, ㉔ㄷ의 ‘오살(鑿殺), 전몰(全歿)’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무찔러 죽임’의 뜻으로 [+승리]의 자질을, ㉔ㄹ의 ‘족살(族殺), 멸문(滅門), 멸족(滅族)’은 ‘일족을 남김없이 죽임’의 뜻으로 [+일가족]의 자질을 가진다.

2.3.3. <종교>의 유형에 따른 분절

<종교>는 다시 [도교], [대종교]¹⁴, [불교]로 하위 분절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㉕ㄱ. 반진(反眞) / ㄴ. 선화(仙化)

위 ㉕의 예는 [도교]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㉕ㄱ의 ‘반진(反眞)’은 도교에서 일반적인 죽음을 이르는 말이다. ㉕ㄴ의 ‘선화(仙化)’는 ‘신선이 되었다는 뜻으로, 늙어서 병 없이 곱게 죽음을 이르는 말’로 편안한 생을 마친 경우를 이른다. [+무병장수]의 성분을 가진다.

㉕ 조천(朝天)

위 ㉕의 ‘조천(朝天)’은 ‘대종교에서, 도가 높은 이의 죽음을 이르는 말’로 [대종교] [+도인]의 성분을 가진다.

㉕ㄱ. 시적(示寂), 시멸(示滅), 천화(遷化), 멸도1(滅度), 열반(涅槃), 적화(寂化) / ㄴ. 쌍림입멸(雙林入滅), 쌍림열반(雙林涅槃) / ㄷ. 엄색(掩色) / ㄹ. 귀본(歸本), 귀원(歸元), 귀적(歸寂), 입적(入寂), 입멸(入滅), 입연(入宴), 입정(入定)

위의 ㉕의 예는 [불교]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㉕ㄱ의 ‘시적(示寂), 시멸(示滅), 천화(遷化), 멸도1(滅度), 열반(涅槃), 적화(寂化)’은 모두 ‘부처, 보살, 또는 고승의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들로 [+고승]의 자질을 가진다. ㉕ㄴ의 ‘쌍림입멸(雙林入滅), 쌍림열반(雙林涅槃)’은 ‘석가모니가 사라쌍수의 숲에서 죽음’의 뜻으로 석가모니의 죽은 곳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사라쌍수]의 자질을 가진다. ㉕ㄷ의 ‘엄색(掩色)’은 ‘석가모니의 눈썹 사이에 있는 흰 털의 빛이 가려져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뜻’에서 생긴 단어로 ‘석가모니나 고승(高僧)의 죽음을 이르는 말’이다. ㉕ㄹ의 ‘귀본(歸本), 귀원(歸元)’은 ‘진적(眞寂)의 본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승려의 죽음을 이르는 말’로 승려가 죽으면 승려에서 다시 원래의 세속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들이고, ‘귀적(歸寂), 입적(入寂), 입멸(入滅), 입연(入宴), 입정(入定)’은 모두 ‘중이 죽음’의 뜻으로 [+승려]의 자질을 가진다.

2.3.4. <가족>의 구성원에 의한 분절

<가족>는 다시 [부부], [부모], [자손], [거례]로 하위 분절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㉕ㄱ. 쌍망(雙亡) / ㄴ. 상부(喪夫), 성붕지통(城崩之痛) / ㄷ. 순사(殉死), 종사(從死) / 상처(喪妻), 상우(喪偶), 상배(喪配)

14 대종교(大倥敎)란 단군 숭배 사상을 기초로 하여, 민속 신앙으로서 조화신(造化神)인 환인(桓因), 교화신(教化神)인 환웅(桓雄), 치화신(治化神)인 환검(桓儉)의 삼위일체인 ‘한얼님’을 신앙적 대상으로 삼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 종교. 1909년에 대종사(大倥師) 나철이 처음으로 열었는데, 성(性), 명(命), 정(精)의 삼진귀일과 지(止), 조(調), 금(禁)의 삼법(三法)을 근본 교리로 하며, 삼일신고 천부경 따위를 경전으로 한다. 한검교, 환검교, 단군교라고도 한다.

위의 ㉘의 어휘들은 [부부]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㉘ ㄱ의 ‘쌍망(雙亡)’은 ‘부부가 둘 다 죽음’으로 [부부]의 자질을 가진다. ㉘ ㄴ의 ‘상부(喪夫)’는 ‘남편의 죽음을 당함’의 뜻이고, ‘성붕지통(城崩之痛)’은 ‘자기를 지켜 주던 성이 무너지는 고통이라는 뜻으로, 남편의 죽음을 맞은 부인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이 어휘들은 [+남편]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㉘ ㄷ은 [아내]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순사(殉死), 종사(從死)’는 ‘죽은 임금이나 남편을 따라 자살하여 죽음’의 뜻이고, ‘상처(喪妻), 상우(喪偶)’는 모두 ‘아내의 죽음을 당함’의 뜻이다. ‘상배(喪配)’는 ‘상처(喪妻)를 높여 이르는 말’로 [+높임]의 성분이 있다.

㉙ ㄱ. 부기(父忌), 부선망(父先亡) / ㄴ. 부재모상(父在母喪)

위의 ㉙ 예는 [부모]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㉙ ㄱ은 [+아버지]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부기(父忌)’는 ‘아버지의 죽음’이고, ‘부선망(父先亡)’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음’으로 [+앞섬]의 자질을 가진다. ㉙ ㄴ의 ‘부재모상(父在母喪)’는 ‘아버지는 살아 있고 어머니가 먼저 죽음’으로 [+어머니]의 자질을 가진다.

㉚ ㄱ. 상명(喪明), 실명(失明), 이효상효(以孝傷孝) / ㄴ. 역리지척(逆理之憾), 참척(慘憾)

위의 ㉚의 어휘들은 [자손]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㉚ ㄱ의 ‘상명(喪明), 실명(失明)’은 ‘아들의 죽음을 당함’의 뜻이고, ‘이효상효(以孝傷孝)’는 ‘효성이 지극한 나머지 아버지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여 병이 나가거나 죽음’의 뜻으로 [+아들]의 자질을 가진다. ㉚ ㄴ의 ‘역리지척(逆理之憾), 참척(慘憾)’은 ‘이치에 어긋나게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에 앞서 죽음’으로 [자손]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㉛ 골육상잔(骨肉相殘), 동족상잔(同族相殘)

위의 ㉛은 [겨레]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골육상잔(骨肉相殘)’은 ‘가까운 혈족끼리 서로 해치고 죽임’의 뜻이고, ‘동족상잔(同族相殘)’은 ‘같은 겨레끼리 서로 싸우고 죽임’의 뜻이므로 두 단어 모두 같은 성분을 가진다.

2.3.5. <신분>에 따른 분절

<신분¹⁵⁾>은 다시 [귀족], [대통령], [임금]으로 하위 분절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㉜ ㄱ. 상선(上仙 / 上僊) / ㄴ. 홍서(薨逝) / ㄷ. 홍거(薨去) / ㄹ. 홍어(薨御)

위의 ㉜ 예는 [귀족]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㉜ ㄱ의 ‘상선(上仙 / 上僊)’은 ‘귀한 사람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이고, ㉜ ㄴ의 ‘홍서(薨逝), 홍거(薨去), 홍어(薨御)’는 ‘왕이나 왕족, 귀족 등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로 여러 신분에 포괄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다.

㉝ 물고(物故), 유고(有故), 서거(逝去)

위의 ㉝ 예는 [대통령]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물고(物故)’는 ‘사회적으로 이름난 사람이 죽음’의 뜻이고, ‘유고(有故)’는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으로 풀이되며, ‘서거(逝去)’는 ‘사거(死去: 죽어서 세상을 떠남)의 높임말’로 뜻이 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㉞ ㄱ. 상천(上僊), 용어(龍馭), 붕어(崩御), 빈천(賓天), 승하(昇遐), 조락(殂落) / ㄴ. 시군(弒君), 시살(弒殺), 시륙(弒戮), 시역(弒逆), 시해(弒害) / ㄷ. 불예(不豫)

15 일반 백성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단어는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없고, 주로 귀족이나 임금 등에 대한 단어는 존재함으로 여기서 신분이라 함은 대다수 높은 신분을 말한다.

위 ㉔의 예는 [임금]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㉔ㄱ의 ‘상천(上僊), 용어(龍馭), 붕어(崩御), 빈천(賓天), 승하(昇遐), 조락(殂落)’은 모두 ‘임금이 죽음’으로 풀이되어, [+스스로]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㉔ㄴ의 ‘시군(弑君), 시살(弑殺), 시륙(弑戮), 시역(弑逆), 시해(弑害)’는 모두 ‘섬기던 임금을 죽음’의 뜻을 가지고 있어 [+타인]의 특성을 가진다. ㉔ㄷ의 ‘불예(不豫)’는 ‘임금이나 왕비가 편치 않거나 죽음’으로 풀이되어 [+왕비]의 자질을 더 가진다.

2.3.6. <생물>의 유형에 따른 분절

<생물>은 다시 [동물], [식물], [세균]으로 하위 분절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㉕ ㄱ. 도축(屠畜), 도살(盜殺), 재살(宰殺) / ㄴ. 도계(屠鷄), 도우(屠牛)

위 ㉕의 어휘들은 [동물]의 분절구조에서 [가축]의 성분을 가진다. ㉕ㄱ의 ‘도축(屠畜)’은 ‘고기를 얻기 위하여 가축을 잡아 죽음’의 뜻으로 [+합법]의 성분을 갖는다. ‘도살(盜殺), 재살(宰殺)’은 ‘가축을 허가 없이 몰래 죽음’의 뜻으로 [+불법]의 자질을 가진다. ㉕ㄴ의 어휘들은 가축의 종류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도계(屠鷄)’는 [+닭]의 자질을, ‘도우(屠牛)’는 [+소]의 성분을 가진다.

㉕ ㄱ. 살생(殺生) / ㄴ. 도륙(屠戮), 도살(屠殺), 도수(屠獸), 도재(屠宰) / ㄷ. 살서(殺鼠)

위의 ㉕ 예는 [동물]의 분절구조에서 [짐승]의 성분을 가진다. ㉕ㄱ의 ‘살생(殺生)’은 ‘사람이나 짐승 따위의 생물을 죽음’의 뜻이고, ㉕ㄴ의 ‘도륙(屠戮), 도살(屠殺), 도수(屠獸), 도재(屠宰)’는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음’의 뜻으로 [+함부로]의 특성을 가진다. ㉕ㄷ의 ‘살서(殺鼠)’는 짐승의 종류로 [+쥐]의 자질을 가진다.

㉖ ㄱ. 살용(殺蛹) / ㄴ. 살충(殺蟲)

위의 ㉖ 예는 [동물]의 분절구조에서 [곤충]의 자질을 가진다. ‘살용(殺蛹)’은 ‘누에의 번데기를 죽음’의 뜻으로 [+번데기]의 자질을, ‘살충(殺蟲)’은 ‘벌레나 해충을 죽음’의 뜻으로 [+해충]의 성분을 가진다.

㉖ 살균(殺菌), 멸균(滅菌)

위의 ㉖은 [세균]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살균(殺菌), 멸균(滅菌)’은 모두 ‘세균을 죽음’의 의미이다.

㉗ ㄱ. 고라지다, 서리죽다, 고사(枯死) / ㄴ. 고한(枯旱) / ㄷ. 숙살(肅殺)

위 ㉗의 예는 [식물]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㉗ㄱ의 ‘고라지다, 서리죽다, 고사(枯死)’는 ‘나무나 풀 따위가 말라 죽음’의 뜻을 가진 단어들로 [+마름]의 성분을 지닌다. ㉗ㄴ의 ‘고한(枯旱)’은 ‘가뭄 때문에 식물이 말라 죽음’의 뜻으로 [+가뭄]의 자질을 가지며, ㉗ㄷ의 ‘숙살(肅殺)’은 ‘쌀쌀한 가을 기운이 풀이나 나무를 말려 죽음’의 뜻으로 [+추위]의 자질을 지닌다.

2.4. <표현>의 형식에 따른 분절

원어휘소 <죽음>은 다시 <표현>으로 하위 분절하고, 이를 다시 <대우>, <비유>로 하위 분류하여 그 특성을 구분지어 의미자질의 차이를 파악한다.

2.4.1. <대우법>에 의한 분절

<대우법>은 다시 [높임], [완곡], [하대]로 하위 분절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㉘ 돌아가다, 선서(仙逝), 선유(仙遊), 작고(作故)

위의 ㉗은 [높임]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죽다’는 보통 표현에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대하여 표현할 때는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㉗과 같은 표현을 쓴다.

㉗ 꺾기다, 넘어지다, 떠나다, 뜨다, 불기(不起), 잠들다, 장서(長逝), 원서(遠逝), 졸(卒)하다, 잘못되다

위의 ㉘은 [완곡]의 분절구조를 가진다¹⁶. ‘죽음’에 대한 표현을 직접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말하는 투가,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준다. ‘죽음’에 관한 완곡한 표현은 매우 많다. ㉘의 단어들이 모두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들이다.

㉘ 거꾸러지다, 고꾸라뜨리다, 고꾸라지다, 까꾸러지다, 꺼꾸러지다, 꼬꾸라지다, 나가빠드러지다, 웨지다

위의 ㉙의 어휘들은 [하대]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죽다’는 보통 표현에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나이가 적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하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표현할 때는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㉙번과 같은 표현을 많이 쓴다. ㉙의 어휘들은 모두 ‘속되게’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죽다’로 풀이하고 있어 [+속되게]로 풀이하고 있다.

2.4.2. <비유법>에 의한 분절

<비유법>은 다시 [구체], [추상]으로 하위 분절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㉚ ㄱ. 옥쇄(玉碎), 옥절(玉折) / ㄴ. 불록(不祿) / ㄷ. 사화(死

16 진문(2020)에서는 한중 죽음에 대한 완곡 표현을 ‘신분, 연령, 종교, 사망 원인’의 네 부분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火) / ㄹ. 개죽음 / ㅁ. 귀천(歸天), 귀천(歸泉), 귀토(歸土)

위의 ㉚의 어휘들은 [구체]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죽음’을 비유적 표현할 때 보이는 사물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㉚ㄱ의 ‘옥쇄(玉碎)’는 ‘옥(玉)’에 비유하여 ‘명예나 충절을 위하여 깨끗이 죽음’을 표현한 것이고, ‘옥절(玉折)’은 ‘재자(才子)나佳人(佳人)이 젊어서 죽음’을 표현한 것으로 두 단어 모두 [+옥]의 자질을 가진다. ㉚ㄴ의 ‘불록(不祿)’은 ‘복을 타지 아니하고 죽는다는 뜻으로, 선비의 죽음을 이르는 말’로 ‘복봉(祿俸)’은 ‘벼슬아치’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비]에 비유를 하였다. ㉚ㄷ의 ‘사화(死火)’는 ‘불교에서, ‘죽음’을 큰 화재가 꺼짐에 비유한 말’로 [+화제]의 자질을, ㉚ㄹ의 ‘개죽음’은 ‘아무런 보람이나 가치가 없는 죽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아무 쓸모 없는 [+개]의 자질을 가진다. ㉚ㅁ의 ‘귀천(歸天)’은 [+하늘]로, ‘귀천(歸泉)’은 [+황천(黃泉)]으로, ‘귀토(歸土)’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비유하고 있다.

㉚ ㄱ. 대귀(大歸), 불귀(不歸) / ㄴ. 올라가다 / ㄷ. 잠매(潛寐) / ㄹ. 적멸(寂滅) / ㅁ. 화거(化去) / ㅂ. 사세(辭世) / ㅅ. 명목(瞑目) / ㅇ. 하직(下直) / ㅈ. 성불(成佛)

위의 ㉚ 용례는 [추상]의 분절구조를 가진다. ㉚ㄱ은 [+돌아감]의 자질구조를 가진다. ‘대귀(大歸)’는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고, ‘불귀(不歸)’는 ‘돌아오지 못함’의 의미로 다시는 올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㉚ㄴ의 ‘올라가다’는 ‘하늘, 하늘나라’ 등과 같이 쓰여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㉚ㄷ의 ‘잠매(潛寐)’는 ‘지하에 숨어 잔다’는 뜻으로 ‘죽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㉚ㄹ의 ‘적멸(寂滅)’은 ‘사라져 없어짐’의 뜻으로 ‘죽음’을 의미한 것이다. ㉚ㅁ의 ‘화거(化去)’는 ‘다른 것으로 변하여 간다’의 뜻으로 ‘죽음’을 비유했으며, ㉚ㅂ의 ‘사세(辭世)’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으로 ‘죽음’을 표현하였

다. ㉔ㄱ의 ‘명목(瞑目)’은 ‘눈을 감음’의 뜻으로 ‘편안한 죽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㉔ㅇ의 ‘하직(下直)’¹⁷은 ‘먼 길을 떠날 때 웃어른께 작별을 고하는 것’의 의미에서 ‘죽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인다. ㉔ㄱ의 ‘성불(成佛)’은 ‘부처가 되는 일’의 의미에서 사람이 죽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었다.

3. 결론

본고에서는 ‘죽음’을 원어휘소로 하는 관련 어휘들의 의미 차이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죽음’에 관련된 어휘로 형성된 낱말밭은 다른 단어들에 비하여 다양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죽음’의 관련어휘는 먼저 <방법>, <대상>, <표현>으로 크게 3개로 하위 분절하였다. 이것을 다시 <방법>은 <행동>, <원인>, <형벌> 3개로 하위 분절하고, <대상>은 <연령>, <인원>, <종교>, <가족>, <신분>, <생물>의 6개로 하위 분절하고, <표현>은 <대우>, <비유> 2개의 하위 분절로 나누었다. 이들 11개의 하위 분절에 포함하는 어휘들의 의미자질을 분석하였다.

(2) 원어휘소 <죽음>은 먼저 <방법>으로 하위 분절하고, 이를 다시 <행동>, <원인>, <형벌>로 하위 분류하여 그 특성을 구분 지어 의미자질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이 하위 분류 <행동>은 다시 <정도>, <동작>, <상황>, <잔혹>으로 하위 분절하여 논의하였다. <정도>는 41개, <유형>은 52개, <상황>은 23개, <잔혹>은 49개의 낱말이 실현되어 모두 165개의 단어가 속한다. <원인>은 다시 <독약>, <병>, <숨>, <싸움>, <의(義)>, <무기>, <전기>, <재해>로 하위 분

절하여 8개의 특성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독약>은 6개, <병>은 7개, <숨>은 3개, <싸움>은 12개, <의(義)>는 10개, <무기>는 4개, <전기>는 2개, <재해>는 2개의 단어로 모두 46개의 단어가 속한다. <형벌>은 다시 <형법>, <죄명>, <방법>, <천벌>로 하위 분절하여 4개의 특성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형법>은 6개, <죄명>은 8개, <형집행>은 11개, <천벌>은 2개의 단어로 모두 27개의 단어가 속한다.

(3) 원어휘소 <죽음>은 다시 <대상>으로 하위 분절하고, 이를 다시 <연령>, <인원>, <종교>, <가족>, <신분>, <생물>로 하위 분류하여 그 특성을 구분 지어 의미자질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연령>은 다시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중년>, <노년>, <순서>로 하위 분절하여 6개의 특성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어린이>는 2개, <청소년>은 4개, <젊은이>는 16개, <중년>은 9개, <노년>은 5개, <순서>는 2개의 단어로 모두 39개의 단어가 속한다. <인원>은 다시 <다수>, <전부>로 하위 분절하여 2개의 특성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다수>는 1개, <전부>는 15개의 단어로 모두 16개의 단어가 속한다. <종교>는 다시 <도교>, <대종교>, <불교>로 하위 분절하여 3개의 특성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도교>는 2개, <대종교>는 1개, <불교>는 16개의 단어로 모두 19개의 단어가 속한다. <가족>은 다시 <부부>, <부모>, <자손>, <겨레>로 하위 분절하여 4개의 특성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부부>는 8개, <부모>는 3개, <자손>은 5개, <겨레>는 2개 단어로 모두 18개의 단어가 속한다. <신분>은 다시 <귀족>, <대통령>, <임금>으로 하위 분절하여 3개의 특성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귀족>은 4개, <대통령>은 3개, <임금>은 12개의 단어로 모두 19개의 단어가 속한다. <생물>은 다시 <동물>, <식물>, <세균>으로 하위 분절하여 3개의 특성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동물>은 13개, <식물>은 5개, <세균>은 2개의 단어로 모두 20개의 단어가 속한다.

(4) 원어휘소 <죽음>은 다시 <표현>으로 하위 분절하고, 이를 다시 <대우법>, <비유법>으로 하위 분류하여 그

17 다의어들의 뜻풀이를 보면 원어휘소에 일치하는 것은 하나이거나 둘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낱말밭에서 논의하기가 힘들어, 본 연구에서는 원어휘소에 해당하는 부분만 논의하고자 한다. 이다의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원어휘소와 같이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해진다.

특성을 구분 지어 의미자질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대우법>은 다시 <높임>, <완곡>, <하대>로 하위 분절하여 3개의 특성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높임>은 4개, <완곡>은 10개, <하대>는 8개의 단어로 모두 22개의 단어가 속한다. <비유>은 다시 <구체>, <추상>으로 하위 분절하여 2개의 특성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구체>는 8개, <추상>은 10개의 단어로 모두 18개의 단어가 속한다.

이상과 같이 <죽음>을 원어휘소로 하는 409개 관련어휘의 의미자질을 하위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이들 단어들을 살펴보면, 한자어로 형성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단어들은 시대의 흐름에 점점 화자들에게는 잊혀져 가는 단어들도 있다. 또한 같은 의미에 여러 개의 동의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죽음>에 대한 언중들의 의도를 볼 수가 있었다. 이는 언어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정신세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의미장에 속한 단어들의 변화는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찾아내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강기룡, 「현대국어의 술 명칭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강상식, 「현대국어의 집짐승 이름씨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성환, 「17세기 국어의 생명종식어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강신항, 「현대국어의 가족 명칭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1967.
- 김억조,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어의 인지언어학적 해석」, 『한민족어문학』 83, 한민족어문학회, 2019.
- 김영진, 「<비>명칭에 대한 고찰(1)」, 『우리말내용연구』 2, 국학자료원, 1995.
- 김종택, 『국어어휘론』, 탑출판사, 1992.
- 김현지, 「한국어 알상 대화에서 '죽다'의 실현 양상 연구: 강조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어문학』 143, 한국어문화회, 2019.
- 박경현, 「현대국어 공간개념어의 의미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박영순, 『한국어의미론』, 고려대학교출판부, 1990.
- 배도용, 「우리말 한자어 생명종식어의 죽음 앞에서의 태도 실현 양상 연구(Ⅰ): '우리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54, 우리말학회, 2018.
- _____, 「우리말 한자어 생명종식어 죽음 앞에서의 태도 실현 양상 연구(Ⅱ): '타인의 죽음'과 금지된 '죽음'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58, 우리말학회, 2019.
- 배해수, 「현대 국어의 생명종식어에 대한 연구: 자동사적 표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 _____, 「<어머니> 명칭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3,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991a.
- _____, 「<아버지> 명칭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106, 국어국문학회, 1991b.
- _____, 「<나이> 명칭에 대한 고찰」, 『한국어학』 1, 한국어학회, 1994.
- _____, 「<겨울> 명칭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34, 안암어문학회, 1995.
- _____, 「<여름> 명칭에 대한 고찰」, 우리말내용연구회 편, 『우리말내용연구』 2, 국학자료원, 1994.
- _____, 편, 『한국어내용연구(1)』, 국학자료원, 1994.
- 손민정, 「중국어의 '죽다'류 어휘에 대한 고찰」, 『중국문학』 41, 한국중국어학회, 2004.
- 양태식, 『국어구조의미론』, 태화출판사, 1984.
- _____, 『국어차원 낱말의 의미구조』, 태화출판사, 1985.
- 원몽길, 「한국어 '죽다'와 중국어 '死'의 대조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유도입, 「한·중 다의어 비교를 통한 한국어 교육 연구: 한국어 '죽다'와 중국어 '사(死)'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7.
- 이경자, 「동사 '죽다' '살다'의 의미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미영, 「<눈>명칭에 대한 고찰」, 『우리말내용연구』 2, 국학자료원, 1995.
- 이승명, 『국어어휘의 의미구조에 대한 연구』, 형설출판사, 1980.
- 이정식, 「'슬프다'류 그림씨의 낱말발」, 『한국어내용연구』 1, 국학자료원, 1994.
- 임지룡,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1992.
- 장기문, 「<아이>명칭에 대한 고찰」, 『우리어문연구』 8, 우리어문학회, 1994.
- _____, 「<소>명칭에 대한 고찰」, 『우리어문연구』 9, 우리어문학회, 1995.
- _____, 「현대국어의 <여자>명칭의 본질구조 고찰」, 『한글』 200, 한글학회, 2000.
- 정재운, 『우리말 감각어 연구』, 한신문화사, 1989.
- 진문, 「한·중 완곡 표현의 대조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정혜령, 「<바람>명칭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한용수, 「중국어 '死'류 어휘 분류」, 『한중언어학회 국제학술대회』 2013-1호, 한중언어학회, 2013.

문학회, 2013.
허발, 『발의이론』, 『한글』 160, 한글학회, 1977.

Abstract**A Study on the Meaning of Vocabulary Related to 'Death'**

Choi, Hong-Yeal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umans are born into the world, live their lives, and eventually die. The vocabulary related to this 'death' is more diverse compared to other words. These words are interconnected in an organic relationship.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emantic differences of words related to 'death'. The vocabulary related to 'death' forms various semantic fields, which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related vocabulary of 'death' is first divided into three subcategories: <Method>, <Subject>, and <Expression>. These are further subdivided into <Method> as <Action>, <Cause>, <Punishment>; <Subject> as <Age>, <Number of People>, <Religion>, <Family>, <Status>, <Living Beings>; and <Expression> as <Treatment>, <Metaphor>. The semantic features of the words included in these 11 subcategories were analyzed.

This paper studied a total of 409 words related to <death> by classifying them into subcategories, and most of the words are formed with Chinese characters. These words are gradually being forgotten over time, and multiple synonyms are used for the same meaning. This indicates a change in our mental world regarding the linguistic world.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changes in the words of the semantic fields through such research and to create new words.

Keywords Death, Semantic Field, Semantic features, Semantics, Lexicology